

외조모의 손자녀 양육지원에 관한 탐색적 연구: 외조모와 어머니의 보고 중심으로

An Exploratory Study on Child Rearing Grandmothers: Based on the Interview of Grandmothers and Mothers

주은선¹ 강명진² 최민정³

EunSun Joo¹ MyeongJin Kang² MinJung Choi³

ABSTRACT

Objective: The purpose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grandmothers and mothers when grandmothers take care of their grandchildren, and to understand the particular meaning of it.

Methods: The Participants were 5 grandmothers who have supported or have experience in caring for their grandchildren, and their daughters(5 working mothers) who have entrusted their children to them.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and analysed by the phenomenological qualitative research method.

Results: Seventeen sub-constructs and 5 constructs resulted in: (1) Motivation of grandmothers and mothers for taking care of grandchildren. (2) Pressure of grandmothers and satisfaction of mothers for the support. (3) Grandmothers stepping back and saying 'Not my child' and mothers saying 'It's my child' and thinking their influence is big. (4) Consistent sacrifice of grandmothers and mothers who cannot do the same. (5) Grandmothers feeling empty after caring for their grandchildren and mothers realizing their efforts.

Conclusion/Implications: This study attempted to understand the relationship between grandmothers and mothers when grandmothers take care of their grandchildren from multi-perspectives. Through the findings, the need for developing healthy relationships and a caring environment for grandmothers and their grandchildren is stressed.

key words child rearing grandmothers, grandmothers and mothers relationship, phenomenological qualitative research

¹ 제1저자(교신저자)

덕성여자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e-mail : esjoo77@gmail.com)

² 공동저자

덕성여자대학교 심리학과
석사수료

³ 공동저자

덕성여자대학교 심리학과
석사수료

I. 서론

보건복지부의 '2015 전국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지원 비율은 2009년 23.2%에서 2012년 35.8%, 2015년 65.6%로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2015). 이는 최근 맞벌이 가정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지원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

다(백지은, 2018). 최근 정부에서는 국민의 요구에 맞춰 ‘손주돌보미 지원 사업’과 같은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이서영, 2013), 이를 통해 이제는 손자녀 양육지원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공동체의 과제임을 알 수 있다.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지원 비율이 증가하는 원인을 살펴보면 사회가 산업화하면서 점차 기혼 여성들의 사회적 진출이 확대되고(강수경, 최혜정, 정미라, 2016), 맞벌이 가정이 꾸준히 증가함으로써 자녀를 맡길 시설에 대한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직장에 다니는 성인자녀는 출퇴근 시간에 차질이 생길 때 유동적으로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보육시설을 원하지만, 만족스러운 시설을 찾지 못하며(유희정, 2016), 대중매체에서 보육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는 보육시설 이용에 대한 불안감을 갖게 함으로써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조부모의 양육을 선호한다(조미현, 김현수, 2015). 또한, 과거 우리나라는 유교문화를 바탕으로 가부장제에서 ‘여성의 의무는 가족을 돌보는 것’이며 ‘남성은 사회에서 일하는 것’으로 간주해왔다. 이에 사회적 태도나 가치관, 교육의 내용 면에서 남존여비, 현모양처의 이미지가 여성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으로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 박혀 있다(김태현, 이문숙, 2011). 오늘날 여성의 지위가 과거보다 크게 성장했지만, 여성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 남아 있어 전통적 여성의 이념과 함께 현대사회에 성취와 경쟁, 자기발전, 물질적 보수가 혼합되어, 여성은 일과 가사라는 이중의 부담을 경험하고 있다(김태현, 이문숙, 2011). 즉,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증가하고 있지만, 남성의 가사와 양육 참여는 크게 반영되고 있지 않은 상황으로 인해 여전히 가사와 양육의 일차적 책임은 여성에게 있게 되었다(강이수, 신경아, 박기남, 2015). 이에 따라 여성은 일과 가사라는 이중의 부담을 느낌으로써 자신을 대신하여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제공해줄 혈연관계에 의한 사적 보육체계인 조부모 양육을 선호한다. 조부모 역시 성인자녀가 독립적인 핵가족을 이루었더라도 자녀를 도와주기 위해 손자녀 양육의 대리자 역할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게 된다(김은정, 2012b). 이것은 서구의 개인주의 문화와는 달리 우리나라만의 고유한 관계 중심적인 문화적 특성으로(박윤, 심형인, 이숙중, 2014), 혈육보다 자녀를 더 잘 돌봐줄 사람이 없다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혈연 중심적인 가족문화의 특성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서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호의존성이 높은 인간관계를 형성하며 가족문화에서도 이러한 관계 중심적인 특성을 보이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관계 중심적인 가족문화에서 딸은 결혼한 이후에도 아들보다 어머니와 친한 정서적 유대감을 유지함으로써(Rossi & Rossi, 1990) 다른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보다도 지속적이고 매우 가까운 관계로 강한 결속력을 보인다(정영숙, 장혜자, 김연화, 2005). 이와 더불어 조부모 중에서도 외조모가 성인자녀 중 딸의 양육에 참여하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육아정책연구원, 2015) 관계 중심적인 우리 문화에서 외조모와 딸의 정서적 유대관계가 강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원인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손자녀 양육이란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는 활동을 뜻한다. 이는 조부모의 양육 유형에 따라 조부모가 주 양육자가 되어 손자녀를 돌보는 전담양육과 공동양육가정에서 손자녀를 돌보는 비전담양육으로 나뉜다(Bowers & Myers, 1999). 첫 번째로 조부모가 전담양육인 경우는 성인

자녀의 이혼, 사망 등 부재한 상황으로 인해 자녀를 직접 돌보기가 어려워 조부모가 전적으로 대리 양육하는 것을 일컫는다. 두 번째로 조부모가 비전담양육인 경우는 성인자녀가 주 양육자이지만 직장생활이나 다른 이유로 인해 조부모가 보조적으로 손자녀를 돌봐주는 것을 일컫는다. 외국의 경우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게 되는 이유는 성인자녀의 범죄, 알코올 또는 약물중독, 학대 등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혼이나 사망 등으로 인한 가족의 해체 또는 성인자녀가 맞벌이인 경우이다(김은정, 2011). 조부모 중에서도 조모가 손자녀를 돌봐주는 형태가 대부분인데 성인자녀가 조모에게 손자녀 양육을 부탁하는 많은 이유가 직장생활을 유지하기 위함이며, 자녀를 제3자에게 맡길 때 가장 믿고 맡길 수 있는 대상으로 혈연인 조모를 생각하기 때문이다(육아정책연구소, 2015). 특히 조모 중에 외조모를 선호하는 비율은 51.5%로((주)마크로밀엠브레인(구엠브레인트렌드모니터), 2014) 많은 성인자녀는 직장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자녀를 돌봐줄 환경이 매우 필요한 상황이며 마음 편하게 부탁할 곳이 외조모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성인자녀 중 어머니는 가정을 형성하는 시기에 조모로부터 다양한 지원을 받으면서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진다. 최근에는 이러한 형태가 확대되면서 조모와 어머니의 주거는 분리되었지만 서로 근접한 거리에 거주하여 조부모가 지속해서 어머니의 양육과 관련하여 경제적 지원과 손자녀를 돌봐주는 새로운 가족 형태가 등장했다. 특히 직장 생활을 하는 어머니의 경우, 도움 청하기가 편한 외조모로부터 가사와 양육에 도움을 쉽게 받기 위해 거주지를 친정 근처로 선택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어(한경혜, 윤성은, 2004), 여성 중심의 새로운 가족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이를 통해 외조모-어머니는 안정적인 혈연관계를 유지하고 서로의 삶에 도움을 주고받는 상호의존적인 모습을 보인다(여성한국사회연구회, 1995). 이러한 가족 형태는 가족 구성원들 안에서 다양한 관계적 긴장을 일으킨다(김은정, 2013).

여기서 주목해보아야 하는 것이 손자녀 양육을 직접 지원하는 조모와 양육지원을 받게 되는 어머니와의 관계이다. 조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조모와 어머니는 서로 긍정적 경험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미옥, 송승민, 이사라, 2015). 먼저 조모의 관점에서 어머니와의 관계는 조모의 양육 스트레스에 큰 영향을 준다(김은정, 정순돌, 2011). 조모와 어머니의 관계가 긍정적일수록 조모의 양육 스트레스는 감소하며 이들의 관계가 부정적일수록 조모의 양육 스트레스는 증가하게 된다. 또한, 조모와 어머니 관계의 질은 조모의 건강 및 심리적 안녕감과 삶의 만족과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문정, 2009; 김은정, 2013; 김은정, 정순돌, 2011). 조모의 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으면 어머니와의 갈등이 적고, 조모의 신체적 건강상태가 좋으면 어머니와의 갈등이 증가한다는 연구를 통해(김미혜, 성기옥, 팽경희, 최희진, 최소영, 2011) 조모가 인식하는 자신의 건강상태는 어머니와 연관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어머니는 직장생활과 양육을 병행하면서 어려움을 호소하는데 조모가 자녀를 돌봐줌으로써 어려움이 줄어들게 된다. 즉, 어머니는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사람과 시설 중에서 조모를 가장 믿고 맡길 수 있는 편안한 사람으로 선택하고 있다(김승용, 정미경, 2006). 반면에 조모의 손자녀 양육이 다른 시설에 맡기는 것보다 낫다는 생각이 들지 않거나 일과 가사를 병행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면 조모와의 관계가 불안정해진다(김현정, 2015). 이처럼 조모의 손자녀 양육지원에서 조모와 어머니는 서로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을 경험하게 되며

이들이 어떠한 관계를 경험하느냐에 따라 조모에게 양육지원을 받는 손자녀에게도 그 영향이 미치게 된다(경북여성정책개발원, 2015).

따라서 조모의 손자녀 양육지원 배경과 양육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모와 어머니 양쪽의 경험을 동시에 이해할 필요가 있다. 특히 조모의 손자녀 양육 중에서도 외조모의 손자녀 양육참여가 점차 증가함으로써 여성 중심의 새로운 가족 형태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혈연중심적인 외조모와 어머니의 손자녀 양육지원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김은정(2013)은 손자녀 양육은 단순히 조모의 양육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데에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손자녀 양육지원의 가족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조부모와 어머니 세대가 새로운 관계 정립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돕는 개입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즉, 손자녀 양육지원은 현재의 시점에서 조모에 관한 연구만이 아니라 손자녀 양육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혈연중심의 외조모와 어머니, 2세대를 중심으로 이들의 양육경험을 이해하고 두 세대의 관계성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손자녀 양육지원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2000년대부터 점차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김은정(2015)은 손자녀 돌봄 지원 관련 연구 동향에 관한 학술지 주제들을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살펴본 결과, 총 78편 중 조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64편으로 조부모 연구 비중이 매우 높았다. 조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손자녀 양육 경험에서의 긍·부정적 경험 및 양육 스트레스와 심리적 안녕, 삶의 만족 관련한 연구들이 대다수를 차지하였다(강유진, 2011; 김문정, 2007; 김은정, 정순돌 2011; 백진아, 2013; 안희란, 김선미, 2015; 이현수, 2007; 전연우, 김윤숙, 조희숙, 2012; 정미라, 최혜정, 2017; 조윤주, 2017). 조부모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만큼 연구 주제도 다양하고 심층적으로 진행되었다. 반면에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지원에서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이 조부모와의 관계에 미치는 요인 및 동거 태도에 관한 연구와(김은정, 2014a; 하석철, 2016) 양육 스트레스 요인과 손자녀 양육에 관한 인식 연구가 이루어졌으며(김은정, 2014b; 김현정, 2015)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지원에 대한 어머니의 경험 사례연구가 수행되었다(김양지영, 2015). 손자녀 양육지원에서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조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와 비교했을 때 매우 제한적인 실정이다. 조부모-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2세대 연구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연구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 조부모와 어머니의 양육역할 인식 및 양육 태도에 관한 연구(김승용, 정미경, 2006; 정경미, 김미경, 2012), 손자녀 양육지원으로 인해 나타나는 조부모 부양과 동거에 대한 태도에 관련성을 파악하는 연구가 수행되었으며(유재연, 2017; 차성란 2014; 하석철, 2015; 하석철, 홍경준, 2016), 손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조부모와 어머니의 관계 경험 및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있다(강혜경, 어성연, 2015; 김미옥 등, 2015; 김은정, 2013; 이재림, 2013; 이지연, 김원경, 정경미, 2009; 정미라, 최혜정, 2017; 최혜지, 2004). 조부모와 어머니의 관계에 관련한 연구가 가장 많으나 주로 양적 연구로 이루어져 있다. 이에 비해 손자녀 양육 참여자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질적 연구는 총 3편으로(강혜경, 어성연, 2015; 김미옥 등, 2015; 이재림, 2013)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손자녀 양육지원에서의 결혼이주여성과 조부모의 관계를 다룬 연구로(강혜경, 어성연, 2015) 다문화 가정의 손자녀 양육지원을 이해하는데 이바지를 하였으나 특수한 문화를 기반으로 하였기에 손자녀 양육지원 전체

를 이해하는 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 다음으로 손자녀 양육지원에서 양육 갈등에 관한 연구(김미옥 등, 2015)는 조모의 손자녀 양육경험을 조모와 취업모의 관점을 중심으로 이들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갈등에 대해 심층적으로 탐색 되었다는 의의가 있지만 양육경험 중에서도 양육갈등이라는 하나의 관점에서 조모와 취업모의 관계를 살펴보았기 때문에 양육경험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관계 역동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 외에도 조모의 손자녀 양육지원에서 조모와 어머니 간의 관계에 대한 의미와 본질을 심층적으로 탐색하는 연구가 수행되었는데(이재림, 2013)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가 친정 부모 또는 시부모 중 대상이 누구인가에 따라 손자녀 돌봄이 어머니에게 다른 의미로 인식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았을 때(하석철, 2015), 외조모와 시조모를 동시에 보았다는 점에서 깊이에 대한 한계가 있다. 이처럼 가족학, 간호 보건학, 사회복지학, 아동 보육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손자녀 양육지원에 관한 연구를 해왔지만 대부분 양적 연구로 진행되었고 조부모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즉, 상대적으로 어머니에 관한 연구가 미약하고 조부모-어머니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본 연구에서도 대부분 조모나 어머니 중에서 한 개인의 경험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실제로 이들의 관계를 파악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손자녀 양육지원은 조모만의 경험이 아니라 양육지원을 받는 어머니와의 관계 역동을 통해 두 세대가 서로 밀접한 관계를 지니기 때문에 외조모의 손자녀 양육지원 과정에서 외조모-어머니는 일방적이 아닌 쌍방적인 관계로 서로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해 각자의 삶의 질과 가족관계에 주요한 영향을 주게 된다. 이에 따라 손자녀 양육지원에 관한 연구에서 외조모와 어머니의 관계성을 살펴보는 연구가 미흡한 상황으로써 본 연구는 상호의존적인 관계 양상을 보이는 한국 문화를 바탕으로 외조모의 손자녀 양육지원에서 외조모와 어머니가 서로의 관계를 통해 어떠한 경험을 했는지 그들의 목소리를 있는 그대로 듣고 서로 다른 세대를 깊이 이해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외조모의 손자녀 양육지원에서 외조모와 어머니 2세대를 동시에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외조모의 손자녀 양육지원에서 혈연관계인 외조모와 어머니가 서로의 관계 속에서 무엇을 체험하는가를 탐색하기 위해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의 체험을 있는 그대로 기술하여 그들의 특별한 체험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밝히는 데 도움을 주는 Giorgi(1985)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외조모의 손자녀 양육지원에서 외조모와 어머니의 체험들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손자녀 양육지원 가족 구성원의 건강한 관계 형성 및 양육환경을 향상하기 위한 기초적인 토대를 제공함으로써 실천적 방안을 제시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손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외조모는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무엇을 체험하는가?

연구문제 2. 손자녀 양육을 지원받는 어머니는 외조모와의 관계에서 무엇을 체험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 선정은 연구 목적의 현상을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는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목적 표집하여 조사하였다. 참여자 모집과정은 평소 연구자와 친분이 있는 지인들을 소개받았으며 서울 소재 대학교 내 홍보 게시판을 통해서도 이루어졌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서울, 인천, 경기, 경북,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외조모 중 어머니를 대신하여 만6세 이하부터 손자녀를 적어도 6개월 이상 양육해온 외조모 5명과 그들의 성인자녀인 어머니 5명으로 총 10명(5쌍)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는 결과를 일반화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현상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목적을 두었기 때문에(조용환, 2012) 사례 수를 늘리기보다는 연구의 목적을 심층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대상에 초점을 맞추었다. 특히 질적 연구의 핵심은 참여자 수보다도 연구자의 태도 및 능력과 인터뷰의 내용 등이기 때문에(한유리, 2015), 현상학적 연구방법에서 참여자가 5명(10쌍)이면 연구목적의 현상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Morse & Field, 1995:34) 최종적으로 참여자를 5쌍(10명)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맞벌이 가정에서 일과 가사의 다중역할을 경험하여 현실을 생동감 있게 살펴보고자 법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주 5일 40시간 근무제 이상으로 근무하고 있는 어머니로 선정하였다.

연구 참여자인 외조모와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표 1, 표 2).

표 1. 연구참여자 (외조모)의 일반적 특성

참여자	연령	학력	배우자 유무	손자녀 양육기간	자녀와의 동거여부
외조모1	73	고졸	무	20년	동거
외조모2	72	고졸	유	13년	비동거
외조모3	79	무	무	14년	비동거
외조모4	72	무	무	15년	비동거
외조모5	64	고졸	유	6년	비동거

표 2. 연구참여자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

참여자	연령	학력	배우자 유무	직장형태	근무 시간
어머니1	50	대졸	유	공무원	교대근무 9시간
어머니2	49	대졸	유	회사원	주6일 08:30-18:00
어머니3	49	대졸	유	강사	주6일 12:30-20:00
어머니4	42	고졸	유	자영업	주6일 09:00-18:00
어머니5	39	대학원졸	유	사업가	주6일 08:00- 19:00

2.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에서는 자료 수집을 위해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다. 심층 면담은 참여자가 원하는 일정을 고려하여 2017년 8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외조모와 어머니 각각 총 2회씩 진행되었다. 1차 인터뷰는 60분에서 120분 정도, 2차 심층 면담은 30분에서 90분 정도 소요되었다.

우선 심층 면담 진행 전에 참여자에게 연락하여 연구 조건에 충족하는지 확인한 후 심층 면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참여자의 메일, 메시지로 연구목적 및 필요성에 대한 간략한 자료와 연구 참여 동의에 관련하여 연구 진행 중 중단할 수 있는 자발적 권리와 비밀보장 원칙, 연구 참여로 인한 이익과 위험에 대해 알렸다.

심층 면담 시작 전에 참여자에게 본 연구에 대해 간략한 소개를 하고 참여 동의서와 녹음 동의서에 관해 설명한 후 서명을 받았다. 심층 면담은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작성하여 실시하였다. 초기 심층 면담에서 외조모 참여자에게는 손자녀 양육을 하게 된 계기와 양육 경험으로 ‘손자녀 양육하면서 경험하셨던 것을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해주세요’, ‘보통 일과는 어떻게 보내시나요?’ 등의 질문을 하였다. 어머니 참여자로부터는 외조모에게 손자녀를 맡기게 된 계기와 양육지원을 통한 외조모와의 관계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 ‘자녀를 조모에게 맡긴 후 생활은 어떠한가요?’, ‘자녀를 돌봐주는 조모와 관계는 어떠한가요?’ 등의 질문을 하였다. 또한, 2차 심층 면담에서는 참여자들의 기술을 바탕으로 더 궁금한 부분에 초점을 두어 1차 면담 보다 구체적인 질문을 하였는데 예를 들면 ‘어머니한테 자녀가 100%로 아니라고 조모라는 느낌이 다르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겠어요?’ 등을 질문하였다. 모든 심층 면담 내용은 면담 후 즉시 녹음내용을 축어록으로 전사하였다.

3.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는 현상학적 연구 방법을 기초하여 외조모의 손자녀 양육지원에서 외조모와 어머니가 관계를 통해 어떠한 양육 경험을 하며 그 특별한 체험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였다. 경험적인 연구를 통해 어떠한 체험의 사실적인 구조가 아닌 그것의 본질적인 구조를 탐구하기 위해 본질직관의 방법을 사용하고자 하여(이남인, 2005) 자료 분석은 질적 연구 중 현상의 본질적인 구조를 파악하는 일련의 반성(reflection) 과정인 현상학적 연구 방법에 따라 수행되었으며(신경림, 2004), 그중 Giorgi의 기술 현상학적 분석 방법으로 수행하였다.

Giorgi(1985)는 개인의 내적 경험을 기술하는 데 있어서 네 가지의 구체적 단계들을 포함하고 있다.

첫 번째 단계는 전반적인 감각획득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참여자의 진술 내용에 대해 전체적인 감각을 얻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연구자는 전체를 잘 파악하는 데 필요한 만큼 계속해서 녹취된 음성과 전사한 축어록을 듣고 읽었다. 두 번째 단계는 의미단위 식별단계로 연구자는 참여자의 인터뷰 내용을 학문적인 주제에 맞춰 의미단위를 구체적인 목적을 통하여 연구의 현상에 초점을 두고 다시 텍스트를 읽으면서 줄 단위로 분석을 통해 주요 의미단위를 구분하였다. 세

번째 단계는 연구 참여자의 일상적인 언어를 학문학적 용어로 변형하는 단계로 이전 단계에서 도출된 의미단위를 연구자의 자유로운 반성(Reflection)과 상상적 변형(Imaginative Variation)을 통하여 중심의미를 가장 적합한 학문적 표현으로 전환하고 이를 연구자의 언어로 기술하였다. 네 번째 단계는 통합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변형된 의미단위들을 구조의 일관성 있는 진술로 통합하는데, 이전 단계들을 통하여 얻은 외조모와 어머니의 손자녀 양육지원으로 나타나는 관계에 대한 체험의 본질을 규명하고 그 사건의 심리학적인 구조에 맞춰 일관적인 기술로 통합하였다.

본 연구자들은 연구를 진행하는 동안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외조모의 양육 경험에 대한 가정과 선 이해를 괄호로 묶고 끊임없이 현상을 새롭게 보기 위해 토론을 진행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참여자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계기가 되어 인터뷰 질문지를 수정하고 연구자의 태도나 괄호 치기에 대한 반성과 검토를 끊임없이 진행할 수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함의적 질적 연구와 현상학적 질적 연구 등 다수의 질적 연구 경험 있는 교수 1인과 현상학적 질적 연구 경험이 있는 박사 1인에게 여러 차례 지도를 통해 연구자로서 가진 선 이해나 가정을 배제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Ⅲ. 결과 및 해석

본 연구에서는 외조모의 손자녀 양육지원에서 외조모와 어머니의 관계 체험과 그 의미를 밝히고자 한다. 연구 참여자들로부터 자료를 분석한 결과, 70개의 의미단위, 17개의 하위구성요소, 그리고 5개의 구성요소가 도출하여 참여자들의 구체적인 체험 내용을 표 3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 3. 외조모의 손자녀 양육지원에서 외조모와 어머니의 관계 체험 구성요소

하위구성요소	구성요소
외조모: 손자녀를 봐주는 동안 어머니 내외가 집사길 원함	
외조모: 손자녀 말아서 어머니가 집 장만하여 뿌듯함	
외조모: '돈을 못 줄망정' 몸으로 라도 때움	외조모와 어머니의 손자녀 양육지원 동기
어머니: '고가의 보육비'에 부담을 느낌	
어머니: '혈육'인 외조모는 남과 비교할 수 없는 존재	
외조모: 손자녀가 나하고 생활을 더 많이 하니까 책임감이 무거움	
외조모: 손자녀를 돌볼 때 어머니와 사위가 흥분까 봐 걱정함	대리양육에 부담을 느끼는 외조모와 외조모양육에 만족하는 어머니
어머니: 직장생활로 부족한 부분을 외조모가 굉장히 잘 채워줌	
어머니: '엄마가 돌본다'라는 안도감에 일이 더 잘됨	
외조모: 내 고집대로 하지 않고 요즘 젊은 시대를 따라감	
외조모: '내 자녀는 내 마음대로 했지만 지 자식이니까' 물러남	'내 자식이 아니니까' 물러나는 외조모와 '내 자식이니까' 내 파위가 크다고 여기는 어머니
어머니: 내 자식이니까 외조모보다는 내 파위가 더 크다고 여김	

표 3. 계속

하위구성요소	구성요소
외조모: '내 하나를 더 희생해서' 도와주고 싶음	지속해서 희생하는 외조모와 외조모처럼 희생하며 못 살 거 같은 어머니
외조모: 양육이 끝난 후에도 계속 반찬으로 어머니를 지원함	
어머니: 외조모처럼 희생하라고 하면 나는 못 할 거 같음	
외조모: 손자녀를 키우고 나니 뭔가 잊어버린 거 같고 허전함	양육 후 허전함을 느끼는 외조모와 외조모의 노고를 깨닫는 어머니
어머니: 시간이 지나고 나니 외조모의 노고를 깨닫는 어머니	

1. 외조모와 어머니의 손자녀 양육지원 동기

1) 외조모: 손자녀를 봐주는 동안 어머니 가정이 집사길 원함

외조모들은 손자녀를 돌봐주는 동안 어머니와 사위가 자녀 보육비를 줄여 집을 장만하길 원한다. 외조모는 내가 잠시 수고하여 손자녀를 돌봐주면 어머니가 '남에게 주는 돈', '애 보는 비용'을 줄여 맞벌이를 통해 빨리 돈을 모아 집을 늘려갈 수 있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손자녀 돌봄에 참여한다. 외조모들에게 집이란 단순히 잠을 자고, 휴식을 취하고, 밥을 먹는 공간을 떠나 재산으로서 어머니의 가정이 경제적으로 안정되었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물로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외조모는 어머니가 하루라도 빨리 집을 장만하여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손자녀 양육을 지원한다.

땀 사람이, 애 보는 사람 들이면 또 돈을 쥐야 하잖아 그래서 아이고 내가 살 동안에 내가 가서 애기 봐줄게 그동안 둘이 빨리 집사라. 나는 그거 없이 무보수로 해줄게 ... 내가 가서 도와주면 둘이 빨리 돈을 모아서, 집을 안 사겠나, 단순히 저는 이 생각이 들더라고. 편하게 할 수 있잖아.

(외조모1)

아니, 신랑이.. 아무것도 없어.. 방 하나 못 얻어줬으니까 맞벌이를 해야 하지 어떻게.. 내가 옆에서 애 봐주고, 엄마는 직장에 다니고 맞벌이 해줬지. 그래가지고 10년 봐줬어. 그래가지고 조그만한 집장만 했어. 혼자 벌어진 집장만 하기 힘들어..

(외조모3)

2) 외조모: 손자녀 맡아서 어머니가 집 장만하여 뿌듯함

외조모들은 어머니가 집을 장만하였을 때 내가 양육지원을 함으로써 어머니에게 보탬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어 뿌듯함을 느낀다. 외조모1은 '내가 애들 맡아서' 어머니와 사위가 돈을 벌여 여유롭게 사니까 보기 좋다고 말하며 외조모3은 '내가 옆에서 봐주면서' 어머니와 사위가 착실하게 돈을 벌여 집을 늘려가는 모습을 볼 때 보람을 느끼며 기뻐한다. 외조모들에게 어머니의 집 장만은 힘들었던 손자녀 양육에 대한 수고의 결실이라고 생각하며 자기 일처럼 기뻐한다. 이처럼 외조모들에게 집 장만의 의미는 손자녀 양육으로 인해 어머니의 경제적 안정에 도움이 되

었다는 양육지원에 대한 보상으로 볼 수 있다.

자기네들이 혼자 버는 건 저거고, 자기네들이 버는 돈 저축해서 그러니까, 집을 장만 하려니까 고런 또 보람 있잖아 ... 한 사람이 벌면 쓰고, 한 사람은 저축을 해야지. 집을 사든가, 뭐 전세방을 늘려가든가 그게 보람이고 재밌잖아. 내가 옆에서 얘기 봐주면서 그냥 봐주나 마나 돈도 하나 못 모으고, 뭐 남자들 망하게 한다고 하면 봐주고 싶지가 않지. 안 그래? 둘이 착실히 하니까.

(외조모3)

3) 외조모: '돈을 못 줄망정' 몸으로라도 때움

외조모들은 어머니를 양육하고 결혼을 통해 독립을 시키기까지 어머니의 삶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머니에게 해준 것이 없다는 부족함 마음을 느낀다. 이에 어머니가 손자녀 양육지원을 요청 했을 때 외조모들은 기꺼이 어머니의 요청을 수락한다. 외조모들은 손자녀 양육지원을 하게 된 이유로 어머니에게 '해줄 건 없고', '돈을 못 줄망정' 이라고 이야기 하며 힘닿는데 때까지 돕고 싶어 한다. 이에 외조모들은 힘든 순간에도 어머니를 도울 수만 있다면 힘든 내색을 하지 않고 기꺼이 돕고자 한다. 이러한 외조모들의 행동은 손자녀 양육 지원 이후에도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껴 지속적으로 어머니를 돕고자 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를 통해 외조모들은 어머니의 부모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내가 어린히 해줄.. 할머니가 해줄 건 없고 지한테 도움 줄 건 없고 이거를 못 도와주면 안 되지. 살라고 저거도 버는 데, 지들 노는 거 같으면은 엄마한테 맡기면 안 되지. 지들도 하루하루 벌어가 그거 못 보태 주겠어? 돈이 많이 돈을 못 줄망정 네 그거는 내가 해줄만 하다 그건 신경 쓰지 말라고 그랬지.

(외조모2)

우에든지 새끼들 내가 힘으로 도와줄 저기지 돈은 없어도 돈으론 못 도와주고 내 힘닿는데까지는 도와준다 이런 생각밖에 없었어... 나는 마 돈은 없어가 돈으로는 못 대어 줄망정 몸으로라도 저거 해준다 이거 이거지.

(외조모4)

4) 어머니: '고가의 보육비'에 부담을 느낌

어머니들은 취업모로서 처음에는 외조모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을 찾지만, 출퇴근 시간과 야근, 회식과 같은 제한적 상황 때문에 적절한 보육시설을 찾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어머니들은 시간과 환경적 제약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으면서 안전하게 봐 줄 수 있는 곳을 찾다가 1:1로 봐주는 베이비시터나 아이돌보미를 선택한다. 그러나 이마저도 자녀가 여러 명이거나 스케줄 근무를 하는 어머니들에게는 적절한 보육시설을 찾기가 어렵다. 또한 이러한 1:1로 봐주는 베이비시터나 아이돌보미는 고가 보육비로 많은 경제적 부담을 갖게 된다. 어머니들은 여러 어려움을 겪다가 적절한 대안이 없을 때 결국 가장 편한 외조모에게 자녀 양육을 요청하게 된다.

그때 회사에 복귀하면서 회사에 복귀는 할 수 있는데 아이 부분이 해결이 안돼서 막연하게 아파트에 그 문어발, 애기 봐주는 분, 1:1로 봐주는 분을 어떻게 구하게 돼서 아이를 맡겼는데 굉장하게 고가였어요. ... 그렇게 해서 한2~3개월 다녔더니 경제적인 어떤 게 되게 많이 오잖아요. 아우.. 내가 이럴 거 같으면 굳이 아이를 맡기면서 일을 할 필요가 있을까? 일을 하면 좋은데 이제 타산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되게 어려운 과정이었는데 엄마가 봐줄 계획이 없으셨어요. 봐줄 계획은 전혀 없으셨는데 제가 경제적으로 힘들고 육체적으로 힘들니까 ...

(어머니2)

저희가 도우미도 쓰는 비용이 만만치가 않잖아요. 어머니가 가까이 계시니 어머니가 도와줄 수 있으면 돌봐주시고 비용을 좀 서포트를 해드리는 그런 부분도 있고, 아이가 세 명인 집에 도우미를 구하기가 또 쉽지가 않은 부분이 있으니까.

(어머니5)

5) 어머니: ‘혈육’인 외조모는 남과 비교할 수 없는 존재

어머니들에게 ‘혈육’은 강력한 지지체계이다. 어머니들은 아이돌보미가 자녀를 자신의 자녀처럼 굉장히 잘 보살펴주었지만, 외조모가 돌봐주겠다는 의사를 내비치자 마음이 확 돌아서는 것을 경험하며 ‘혈연’은 남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존재라고 이야기한다. 어머니들에게 혈육인 외조모는 존재 자체로 안정이 되기 때문에 남이 봐주는 것과는 다르게 자녀를 더 애정으로 보살펴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 이처럼 어머니들은 혈육인 외조모는 원초적인 사랑을 주는 존재로 아무리 좋은 아이돌보미와 시설이 있더라도 혈연관계인 외조모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정말로 자식한테 큰 힘이 되는 거 같아요.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애기를 봐준 그분이 애기를 굉장하게 잘 봐줬어요.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집이 굉장히 깔끔하셨고, 그렇게 봐주는 와중에 엄마가 온다고 하니 까 엄마한테 마음이 확 가더라고요. 그것은 비교할 수 없는 것 같애. 남하고 혈연관계하고는 비교가 안 되지. 그런 거 같애...무조건 그 아이한테 사랑해주고 원초적인 부분 뭐 잘 먹이고 아주 원초적이고 내가 굉장히 좋은 위탁시설이 있어도 나는 우리엄마한테 맡길 거 같아요.

(어머니2)

아~ 차이가 있죠! 일단은 저희 그 도와주시던 이모님도 엄청 오래계셨거든요. 저희 애들 참 잘 챙겨주는 스타일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어..그래도 타인이잖아요. 그거랑 혈육이니까 조금 기본적으로 애를 애정으로 대해주는 게, 굉장히 잘해주셨는데도 이제 베이스로 있고, 예, 예. 그런 면이 있어요.

(어머니5)

2. 대리양육에 부담을 느끼는 외조모와 외조모양육에 만족하는 어머니

1) 외조모: 손자녀가 나하고 생활을 더 많이 하니까 책임감이 무거움

외조모들은 어머니가 직장에 나가 있는 동안 손자녀가 나와 함께 있는 시간이 어머니보다 많은 것

에 대해 책임감을 느낀다. 외조모들은 내가 손자녀를 잘 못 챙겨서 손자녀 버릇이 나빠지고 엇나갈까 봐 걱정하며 손자녀가 자신감 없는 모습을 보일 때는 ‘내가 끼고 길러서’ 그런 것 같아 염려한다. 또한, 손자녀가 걷다가 넘어져서 다치면 ‘내가 잘 돌보지 못해서’라고 생각이 들어 책임이 무겁다고 이야기한다. 이러한 책임감은 외조모들이 자신을 ‘할머니’, ‘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아무래도 젊은 사람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외조모의 생각은 손자녀의 양육자 역할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내가 애들을 엄마 직장 나가는 동안에 어떻게 보살펴야 애들이 바른길로 가겠나 이게 내가 항상 걱정이었지... 비행청소년도 내가 잘못 가르키면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런 걱정이고 저거 엄마, 저거 아빠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오니까 내하고 생활을 더 많이 하잖아. 그러니까 그게 내 나름대로 제가 노력을 좀 했지.

(외조모1)

이제 내가 이렇게 전적으로 엄마아빠 출근해버리고 내가 전적으로 종일 저녁까지 먹여놓고 치워놓고 가잖아. 그러면 책임감인거 같은 게 내가 제대로 못하면 저게 엄마아빠는 돌볼 시간도 없는데 내가 잘 못 챙겨 놓으면 애 버릇이... 그런 거에 대한 게 내가 항상 조금 마음이 무거워. 내 입장에서는 엄마아빠가 못 챙기니까 내가 챙겨야지 올바르게 성장하겠다 싶은 마음에..

(외조모5)

2) 외조모: 손자녀를 돌볼 때 딸과 사위가 흥분까 봐 걱정함

외조모들은 어머니가 ‘엄마가 길러서 애가 저래’라고 손자녀를 잘못 길렀다며 핀잔을 주고 원망을 할까 봐 걱정한다. 외조모들은 내 자식이 감기 걸렸을 땐 신경을 안 썼지만, 손자녀가 감기에 걸리면 어머니와 사위에게 조심스럽고 미안하여 신경이 쓰인다. 이러한 이유로 외조모들은 손자녀 양육방식에 있어 어머니가 못마땅하여 흥을 보진 않을까 하는 생각에 노파심이 든다. 이처럼 외조모들은 어머니가 직장에 나가 있는 동안 온종일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심리적 부담감과 신체적 피로, 그리고 어머니와의 관계 염려로 손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

저 엄마가 길렀으면 습기가 있던 없던 괜찮은데...저 엄마가 길러가지고 치맛살이 드는 거는 나는 상관 안해. 그렇지만 할머니가 저 엄마가 보기가 할머니가 길러서 엄마가 길러서 애가 저래 이럴까봐 제일 걱정이 되더라고..

(외조모2)

내가 이렇게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케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애가 혹시나 또 사위나 딸이 엄마가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얘기를 하면 어떡하노 이런게 노파심일지도 모르는데 그렇게는 하지 않겠지만 즈그는 또 100% 만족스럽지는 못하잖아. 내가 딸하고 사위하고 100% 만족 못하듯이.

(외조모5)

3) 어머니: 취업모로서 부족한 부분을 외조모가 굉장히 잘 채워줌

어머니들은 취업모로서 일과 가사를 병행하기 때문에 전업주부처럼 자녀의 공부를 세심하게 챙겨주지 못하거나 자녀가 아플 때가 가장 힘들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외조모가 양육지원을 해줌으로써 자녀에 대한 부족한 부분을 나보다 더 완벽하게 해주기 때문에 안심이 된다. 또한, 외조모가 나를 키울 때처럼 나의 자녀에게도 애정을 쏟으며 식사나 공부도 세심하게 챙겨준다는 믿음이 있어 안정된다. 이처럼 어머니들은 취업모로서 가사와 양육 부분에 있어 부족한 부분을 외조모가 굉장히 잘 채워줘서 만족해한다.

내가 우리 애를, 나는 직장을 다니고, 직장 다니면 전업주부처럼 그렇게 못해주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사람들 마다 생각이 다르잖아요. 직장을 다니면서도 죄지은 것처럼 그 부분을 나는 엄마가 완벽하게 해주다보니까.

(어머니1)

4) 어머니: '엄마가 돌본다.'라는 안도감에 일이 더 잘됨

어머니들은 외조모의 양육지원으로 인해 직장생활에 더 집중을 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는 자녀가 누군가에게 잘 보살핌 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야 하는데 외조모가 자녀의 생활적인 면과 정서적인 면을 잘 채워주고 계신다는 생각에 안도감을 느낀다. 또한, 퇴근시간이 늦어져도 시간적인 제약을 받지 않고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이 편하다. 어머니2는 다른 또래 친구들 보다 연봉도 높고 오랫동안 직장생활을 유지 할 수 있었던 것은 외조모의 덕분이라고 이야기한다. 이처럼 어머니들은 자녀가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다는 안도감을 느낄 때 자기 일에도 긍정적 시너지를 내며 외조모의 양육지원으로 인해 마음의 여유를 찾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일이 더 잘됐던 거 같아요. 지금도 직장생활 유지하는 게 엄마의 부분이 팽~장히 크죠. 남편하고도 제가 지금 49살인데 직장 생활하는 거는 우리엄마의 덕이 거의 크다. 그때 내가 만약 쉬었으면 지금의 내가 있을까하는 이야기를 하죠. ... 내 나이에 내 친구들을 비교한다면 연봉도 많이 받고 있고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일에 대한 경력도 있고 뭐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어머니2)

이모님께 부탁을 했을 때는 퇴근 시간을 맞춰드려야 하잖아요. 그런 부분인데 저희 친정엄마한테 부탁드릴 때는 그런 부분을 융통성 있게 그 시간에 반드시 가야한다는 신경을 덜 써도 되고 제가 없어도 정서적인 면이나 여러 생활적인 면이 케어가 된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제가 바깥일을 편하게 볼 수 가 있죠.

(어머니5)

3. '내 자식이 아니니까' 물러나는 외조모와 '내 자식이니까' 내 파워가 크다고 여기는 어머니

1) 외조모: 내 고집대로 하지 않고 요즘 젊은 시대를 따라감

외조모들은 어머니와 양육에 대한 견해차가 있을 때 어머니가 과하다고 느낄 때도 있지만 대

부분의 외조모들은 ‘요즘 젊은 시대가 저렇구나.’라는 생각을 하며 젊은 세대인 어머니에게 배울 게 많다는 생각에 어머니 의견에 맞추려고 노력한다. 이는 외조모가 살던 시대와는 급격하게 변화한 시대에 적응하고 따라가려는 행동이자 어머니가 사는 시대를 존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어머니와의 관계에 있어 갈등보다는 이해하는 쪽으로 관계를 완화하고 싶은 외조모의 마음이며 세대 차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외조모의 노력으로 볼 수 있다.

옛날 사람들은 선입견이 있어가지고 아들이 선호가 된다가이 요즘은 딸아들 딸이 좋다케싸코 사니까 인자 호홉을 맞춰가는 거지. 성인도 시대를 따르라는 말이 옛 말이 있듯이 세월이 자꾸 변화시켜주니까 네 늙은이도 따라가야 해요.

(외조모1)

딸도 교육을 전공을 했고 하니가 시대에 맞춰야 되지 우리도 젊은이들한테 배울게 많잖아... 우리 때 생각하고 요즘 시대 애들은 참 영리하고 또 지혜롭고 더 많이 배웠잖아 그지? 그니까 현명하게 잘 사는 거 같아.

(외조모5)

2) 외조모: ‘내 자녀는 내 마음대로 했지만 지 자식이니까’ 물러남

외조모는 어머니와 양육방식에서 갈등이 생길 때 ‘내 새끼는 내 마음대로 했지만’, ‘지 딸이니 까 해줘야지’라고 생각하며 어머니의 의견이 내키지 않더라도 따르고자 한다. 손자녀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도 어머니가 ‘할매는 한다리 걸치니까’ 부모한테 말기라고 말할 때 손자녀의 부모가 아닌 할머니이기 때문에 속이 상해도 티 내지 않고 어머니와 손자녀의 상황을 옆에서 지켜보기만 할 뿐이다. 즉, 손자녀는 내 자녀가 아니라 어머니의 자녀로서 주 양육자가 아님을 인식하여 어머니와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손자녀를 걱정하되 직접 개입하지 않고 한 발짝 물러나 상황을 지켜본다.

딸이 엄마 나도 가만있잖아 할매는 한 다리 걸치니까 엄마는 우리한테 말기고 걱정하지 마라 이러더라고 내는 그래도 태산 이지. 걱정 안하는 척 했지, 속앓이만 했지. 저거는 엄마 걱정하지마라.. 인자 그러고 티를 안냈지.

(외조모1)

내가 그렇게 두껍게 입힌거다. 엄마 우풍있어도 얇은 거를 몇 가지 더 입히지. 내복 입히고 위에 입히고 애가 둔해가지고 삐그작 삐그작 이룬다 이거야 그래서 그러고 난 뒤부터 엄마(어머니)가 싫어하는 거는... 씩... 하지 말아야 싶어서 안 해야 되겠더라고.. 지 딸이니까, 지 딸이니까 해줘야지.

(외조모2)

중국어, 수학, 논술, 영어로 지금은 너무 많이 시키는 거라 ... 과하다싶을 때도 있지만 내가 이래라 저래라, 지 새끼니까 내 새끼는 내 마음대로 했지만. 딸 문제니까 즈거하는데로 너무 무리하지마라 이소리만

하지 내가 막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괜히 그런 개입은 절대 안 해.

(외조모5)

3) 어머니: 내 자식이니까 외조모보다는 내 파워가 더 크다고 여김

어머니들은 자녀 양육문제로 외조모와 갈등을 빚을 때 내 자식 문제이기 때문에 외조모보다는 내 파워(양육권한)이 더 크다고 이야기한다. 또한, 외조모가 자녀의 주 양육자가 아니므로 부모만큼 파워가 클 수 없다고 말한다. 이러한 생각에 어머니는 자녀 양육문제에 있어 부모 권한으로 본인 선에서 자녀 문제를 결정한 후 외조모에게 통보한다. 어머니들 중에는 말이 아닌 행동을 통해 외조모의 양육 개입을 제한하는데 어머니4는 자녀를 훈육할 때 외조모가 개입하면 자녀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 훈육함으로써 자녀 문제에 개입하지 말라는 신호를 보낸다. 어머니가 자녀를 데리고 나가 훈육하는 행동은 대리양육자와 주 양육자의 역할에 대한 암묵적 경계를 표시하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자녀 문제에서 부모가 한 발 앞장서고 외조모가 물러나도록 경계를 표시하는 것은 외조모와의 갈등상황에서 자신들의 역할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대처하기 위한 역할 몰입으로 볼 수 있다.

우리엄마가 예를 들면 공부를 해야된다하는데 저는 자기가 알아서 하니까 그때는 트러블이 좀 있었죠. 결국에는 내자식이다보니까 엄마의 파워보다는 내 파워가 큰 거죠. 그리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때는 얘기 안할 거는, 트러블이 생길 문제는 내가 그냥 얘기 안하고 엄마가 이렇게 반응 할 거니까 아예 내가 결정해버리고 나중에 결과가 나왔을 때 이렇게 됐다고 하면(넘어가심)

(어머니1)

우리엄마는 100%로거든요. 우리 아이에게, 근데 저는 보면 기고 아니고가 있거든요. (자녀가) 나쁘게 행동을 할 때, 엄마가 보지 않는 찰나에 애를 데리고 밖으로 빨리 나가죠. 그러면 우리엄마가 내가 중간에 말려서 안되는 거는 엄마가 캐치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데리고 나간다는 행동을 취했을 때는 아 이선까지는 내가 너무 개입하면 안되는구나를 엄마에게도 그어 드리는 거죠.

(어머니4)

4. 지속해서 희생하는 외조모와 외조모처럼 희생하며 못 살 거 같은 어머니

1) 외조모: '내 하나를 더 희생해서' 도와주고 싶음

외조모들은 손자녀를 양육하면서 몸과 마음이 힘들고 이전처럼 개인생활을 누리지 못하면서도 '내 새끼가 잘살면', '자식을 위해' 하는 거라면 내가 힘들더라도 참고 견디려고 노력한다. 또한, 외조모들은 어머니를 위해서라면 조금이라도 내 몸이 성할 때 '건강할 때까지', '내 능력이 되는 한' 해줄 수 있는 만큼 모두 챙겨주고 싶어 한다. 즉, 외조모들은 본인의 고통보다도 어머니가 잘 살길 바라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어머니가 만족해하며 사는 모습을 보면서 외조모들도 마치 자기 일처럼 큰 만족감을 느낀다. 이를 통해 자녀가 외조모들의 삶에서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자는 약해도 엄마는 강하다고 엄마는 강하잖아. 내 하나를 조금 더 희생해서 다 내 새끼 때문에, 내 새끼 너무 고생하는데. 안그렇나? 세상 모든 엄마들이 자식 챙기는 마음은 다 똑같애. 그 마음 때문에 내가 이래 지낸다 아니가.

(외조모5)

나는 내 고통은 막 고통이 아니다 생각을 아예 내 어렵다 이런 생각을 안했어요. 나는 그냥 새끼들만 우에든지 잘만 살면 말없이 잘만 살면 거기에 만족이야 나는.

(외조모4)

2) 외조모: 양육이 끝난 후에도 계속 반찬으로 딸을 지원함

외조모들은 손자녀 양육이 끝난 후에도 자신을 위해 시간을 쓰기보다는 반찬을 직접 만들어 주면서 계속해서 어머니를 챙겨준다. 어머니가 손자녀 양육에 대한 고마운 마음으로 외조모들에게 용돈을 챙겨드리지만 이마저도 자신을 위해 투자하기보다는 대부분 어머니와 손자녀를 위해 사용한다. 이러한 외조모들의 어머니에 대한 끊임없는 지원은 외조모들이 살던 시대의 여성상이 가정을 잘 보살피고 남편과 자녀의 성취를 대리 만족하는 것으로써 외조모들은 손자녀 양육이 끝난 이후에도 어머니를 위해 계속해서 반찬과 김치를 만들어 지원하는 행동을 한다.

나는 뭐 김치 반찬이나 해줬지 뭐 반찬 계속 양쪽으로 다 주고.. 나를 위해서 쓰는 건 난 구경하는 것도 싫어 난 멀미를 하기 때문에 나는 뭐 구경을 땡기는게 싫더라고 난 이상해 방에 들어앉아서 맛있는 거해서 애들 반찬이나 해주고 맨날이나 그냥 집안이나 치우고 빨래 깨끗이 해서 그냥 그런 취미가 더 좋지 음식해서 주면 맛있게 먹는 게 좋고..

(외조모3)

3) 어머니: 외조모처럼 희생하라고 하면 나는 못 할 거 같음

어머니들은 외조모가 자식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온 삶을 생각하면서 그 모습을 자신의 삶에 대입하여 생각해본다. 또한, 어머니들은 부모로서 자녀에게 내 삶의 일부는 내어줄 수 있어도 외조모처럼 삶의 전부를 내어 줄 수는 없을 것 같다고 이야기한다. 특히 외조모가 살아온 삶처럼 나는 경제력이 없는 남편과 아이를 낳아 어려운 환경 속에서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못 살 것 같다는 생각에 외조모를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이야기한다. 어머니들이 외조모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삶도 아닌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살아가도록 교육받은 세대로서 외조모와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이다. 이처럼 어머니가 외조모의 삶을 자신에게 대입하는 것은 손자녀 양육이 외조모와 어머니의 개인적 경험이 아니라 이들의 관계에서 서로 밀접하게 심리·정서적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말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과연 내가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이 어렸을 때는 이렇게 사는 게 정상이라고, 모녀 3대가 사는게 정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도 엄마랑 그렇게 살 거라고. 애 놓고 그렇게 살 거라고. 근데 내가 우리 딸한테는 그렇게 못해 줄 거 같아요.

(어머니1)

너희 엄마처럼 살아라고 하면 못하고, 우리 엄마를 이해하라고 하면 못해요. 여자로서, 일대일 제가, 만약 내가 저렇게 살아야 되면 엄마처럼 안 살았을 거예요.

(어머니4)

우리 엄마는 한번도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우리나라의 생각인 현모양처 있죠? 우리 아버지를 챙기시고 자식들 챙기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로 성실하시고요. 굉장히 검소하세요. 진짜 검소하시고 대표적인 현모양처예요. 나 같으면 못할 거 같아요.

(어머니2)

5. 양육 후 허전함을 느끼는 외조모와 외조모의 노고를 깨닫는 어머니

1) 외조모: 손자녀를 키우고 나니 뭔가 잊어버린 거 같고 허전함

대부분에 외조모들은 손자녀를 어머니의 집이 아닌 자신의 집에서 양육하며 주말에 어머니가 와서 손자녀를 데리고 갔는데 손자녀가 다 커서 어머니가 데려간다고 했을 때 언젠가 떠난다는 생각은 했지만, 막상 간다고 하니 섭섭한 마음이 든다. 외조모들은 손자녀 양육이 끝나고 난 후 허전한 마음에 어머니 집에 찾아가지만 갈 때마다 어머니와 손자녀의 바쁜 생활을 보면서 내가 괜히 귀찮게 하고 부담 주는 것 같아 자주 가봤자 소용이 없다는 걸 느낀다. 외조모는 손자녀 양육이 끝난 후 손자녀가 채웠던 빈자리를 느끼며 ‘무언가를 잊어버린 거’ 같아 허전하다고 이야기한다. 이러한 허전함은 오랫동안 상실을 느낀다.

섭섭했던 거는 엄마 나 이제 애기 데리고 갈게 이래 갈 때 섭섭하지. 엄마 섭섭할까봐 말을 못했던 가봐... 애기가 가고 나니까 너--무, 너무. 내가 저기 집에서 못 보잖아. 거기에 섭섭했지 ... 그래도 항상 허전한 건 허전해. 항상 허전해.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면 마음이 꼭 차는데 또 저녁을 먹고 헤어지면은 또 허전해. 올 때는 좋은데 가고나면 허전해... 아직도 항상 아쉬워 지금도 항상 같이 안 사는 게 아쉬워. 떨어져 있는 게 항상 보고싶고,

(외조모2)

학교 가고 그러니까 지엄마가 엄마 너무 힘드니까 그만 오시라고... 그만 오시라고 하는데.. 섭섭하더라고.. 서운하고 뭔가 잊어 버린 거 같고.. 그렇더라고. 허전하고. 아휴 그래서 그 전엔 가까운데서 자주 봤는데, 여기 와서 자주 못 보니까 가면 또 그냥 밤중에 오니까 내가 자야만 봐.

(외조모3)

2) 어머니: 시간이 지나고 나니 외조모의 마음을 깨달음

어머니들은 외조모의 손자녀 양육지원이 끝나고 난 후 자녀와 마주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자녀양육에 대한 어려움과 부모역할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면서 외조모의 마음을 깨닫는다. 어머니2는 외조모가 자녀를 돌봐준다고 했을 때 ‘당연히 돌봐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몸도 편치 않은 외조모가 손자녀를 돌봐주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다는 걸 느끼

면서 과거에 자신이 외조모에게 대했던 행동에 대해 반성하게 된다. 이처럼 어머니들은 외조모의 부재 속에 자녀양육을 하면서 점차 외조모의 노고를 깨닫는다.

(자녀를 돌봐준 다고 했을 때) 솔직히 이야기하면 막 고맙지는 않았고요. 왜냐하면 그냥 당연히 봐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게 우리 엄마가 얼마나 큰 결정을 하신거구나. 향후 10년 뒤에는 똑같은 그런 어떤 일을 겪을 수 있는데 그때 우리 엄마처럼 텔꼬와 내가 봐줄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해요. 그때 내가 정말 철이 없었구나 생각을 해요.
(어머니2)

엄마가 뭘 아냐고 아닐 수도 있다고 병원가야 알지 엄마가 의사냐고 막 그래서 섭섭한 적도 있었을 거예요. 우리 딸도 날 무시할 때가 있거든요. 엄마가 뭘 알아. 엄마도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식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면 나도 섭섭하거든요. 우리 엄마도 섭섭했었다라는 거. 나도 옛날에 우리 엄마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엄마도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다.
(어머니3)

저는 그때까지는 생각하지 않았는데요. 요즘 음 요즘 제가 늦둥이를 키우면서 느낀 건데 정말 대단하시구나 정말 내가 엄마한테 어떻게 갚아도 다 못 갚을 거 같다 그런 생각을 하죠.
(어머니4)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맞벌이 가정 손자녀 양육지원에서 외조모와 어머니 2세대를 동시에 살펴봄으로써 혈연관계인 외조모-어머니가 관계 속에서 무엇을 체험하는가를 탐색하고 그 체험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함의와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맞벌이 가정의 외조모와 어머니가 손자녀 양육지원을 선택하는 동기에 관한 공통점으로 경제적 안정을 보고한다. 외조모는 손자녀를 돌봐줌으로써 보육비를 줄여 집 장만을 하여 안정적으로 살길 원하고, 어머니 또한 고가의 보육비로 인한 부담을 줄이고자 외조모에게 자녀 양육을 부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외조모-어머니 모두 경제적 안정이 손자녀 양육지원 동기에 중요한 부분임을 알 수 있다. 외조모들은 어머니를 키우고 결혼까지 시켜 독립시켰지만, 여전히 부모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어머니들의 삶을 지원하고 있다. 외조모들은 실질적인 돈을 줌으로써 어머니의 경제적 보탬이 되고 싶지만, 형편이 되지 않아 돈을 주지 못할 때 몸으로라도 돕고자 한다. 이는 직접 경제적 도움이 되진 않더라도 일과 가사를 병행하면서 정신적·육체적으로 피곤한 어머니를 위해 자녀양육을 대신 말씀으로써 어머니가 경제적인 활동을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여기서 주목해서 볼 점은 외조모에게서 손자녀 양육은 단순히 어머니의 생활적인 어려움을 돕고 편안하게 살길 원하여 경제적 지원하는 것을 넘어서 보육비용을 줄여 ‘집 장만’이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집’이 갖

는 의미는 전통적으로 의식주라는 인간의 기본 생존 욕구를 충족시키는 공간을 넘어서 집을 장만하는 것을 일생의 사업이자 국민의 보편적 소망으로 여기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모두가 추구하는 규범이 되었는데(이은지, 2013) 이는 집 장만이 사회·경제적으로 ‘존재론적 안정감’(ontological security)으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이다(Hamnett, Harmer, & Williams, 1991). 또한, 집 장만은 자신에게 가치와 능력이 있다고 여기며 스스로의 정체성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따뜻함과 안락함 등을 경험한다는 연구를 볼 때(Saunders, 1990), ‘집 장만’이 가지는 특성에 따라 외조모는 불안정한 경제 사회 속에 어머니가 경제적 향상을 통한 안정적인 삶을 살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외조모는 어머니의 집 장만이 이루어졌을 때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고 보탬이 되었다는 생각에 손자녀 양육에 대한 보람과 만족을 느끼며 힘든 양육 과정에 대한 양육보상을 경험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손자녀 양육이라는 실질적인 도움 제공을 통해 양육 보상감을 느낀다는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김미옥 등, 2015; 김은정, 정순돌, 2011).

어머니들 또한 외조모에게 자녀 양육을 부탁하게 된 동기 중 하나로 경제적인 이유 즉, 고가의 보육비 부담을 언급한다. 이는 단순히 보육비가 부담되는 차원이 아니라 어머니는 취업모로서 일과 가사 두 영역을 병행하는 과정에서 출퇴근이라는 제한된 시간적 한계로 인해 적합한 육아 지원 시설을 찾지 못하고(유희정, 2016) 국가 차원에서 보육비 지원 및 보육 시설확대와 취업모 자녀에 대한 육아 지원 정책이 미비하기 때문이다(김은정, 2012a). 이에 어머니들은 개인적 차원에서 보육 지원대책으로 1:1로 봐주는 베이비시터나 아이돌보미를 고용하게 된다. 이로 인해 고가의 보육비가 지출됨으로써 경제적 부담감을 느낀다. 여기서 어머니들은 자녀 양육에 있어 출퇴근 시간의 유동성을 확보하면서도 보육비를 절감할 수 있는 적절한 대안으로 외조모 양육을 선택한다. 이때 어머니들은 자녀 대리양육자로서 망설임 없이 외조모를 선택하는데 그 이유는 혈육이기 때문이다. 혈육인 외조모는 그 자체로 큰 안정감과 힘이 되는 존재로 ‘원초적인 사랑’을 자녀들에게 주며 애정을 쏟는 부분도 남들과 비교할 수 없다고 말한다. 이는 혈연관계인 외조모보다 자녀를 더 잘 돌봐줄 수 없다는 신뢰로 우리나라 가족문화 특성으로 볼 수 있다(김은정, 2012a). 이러한 결과는 다른 사람보다도 혈연관계인 외조모에게 상호의존도가 높고 외조모를 원가족 애정을 기초로 형성된 친족 관계로, 외조모와의 관계를 더 좋게 인식한다는 연구 결과를 뒷받침한다(정영숙 등, 2005; 김은정, 2014b; 정미라, 최혜정, 2017; 최혜지, 2004).

둘째, 외조모들은 손자녀 양육에 있어 어머니 대신 손자녀의 부모 역할에 부담을 느낀다. 특히, 외조모들은 자신들을 ‘할머니가 키워서’, ‘늙은 사람 표가 날까’ 라고 표현하며 젊은 사람보다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이는 외조모들이 조부모로서의 의미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조부모로서의 의미란 조부모 됨에 대한 인식수준을 의미하는 것으로 조부모로서의 자신의 역할과 정체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지 혹은 부정적으로 인식하는지에 대한 것이다”(Reitzes & Mutran, 2004: 김은정, 2012b에서 재인용). 외조모들은 젊은 사람보다 부족하며 늙은 사람이 양육하여 티가 날까 봐 걱정하는 모습에서 조모의 역할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손자녀의 부모역할에 대한 양육부담감을 느낀다. 이러한 양육 스트레스는 어머니와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외조모들은 어머니가 자신의 손자녀 양육을 못마땅하게 여겨 흉을 보지 않을까 노파심이 든다고 표현한다. 이 결과는 조부모로서의 의미 인식을 부정적으로 인식할 때 조모

들은 직접 양육 스트레스를 겪으며 간접적으로는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를 뒷받침 해주고 있다(양소정, 정경미, 김원경, 2008).

어머니들은 외조모의 양육에 있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취업모로서 자녀를 보육 시설에 맡기는 다른 직장인 여성들에 비해 외조모의 손자녀 양육지원으로 자신은 혜택을 받았다고 보고한다. 특히, 어머니들은 외조모의 양육을 ‘굉장히’, ‘완벽하게’ 해주고 있다고 표현하며 자녀들이 외조모로부터 양육을 잘 받고 있다는 안도감에 직장생활에도 집중할 수 있다고 한다. 이는 어머니들이 시간과 환경적 제약으로 인해 자녀를 충분히 돌보지 못한다는 양육 죄책감을(정태연, 노현정, 2005), 외조모가 나를 대신하여 채워 주고 있다고 여김으로써 만족감을 느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일과 가사라는 이중역할을 하는 어머니들에게 가족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인적자원이 없다는 생각은 심리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만, 자녀의 양육 및 가사를 함께 해 줄 수 있는 조력자가 있을 때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이숙현, 2010). 이러한 결과는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 지원이 성인자녀의 자녀 양육에 안전망 기능을 함으로써 성인자녀의 양육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경제적 활동까지 가능하게 한다는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며(신화용, 조병은, 2004; 한민아, 한경혜, 2004; Gattai & Musatti, 1999), 조모의 손자녀 양육지원이 취업모에게 큰 만족감을 준다는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육아정책연구원, 2015; 이재림, 2013). 따라서 외조모와 어머니의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외조모는 조부모 역할을 부정적으로 인식하여 손자녀 양육에 자신감이 없고 어머니와의 관계를 염려하지만, 어머니들은 혈연관계인 외조모에게 믿고 맡길 수 있다는 생각에 외조모 존재 자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외조모의 양육 스트레스는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김문정, 2009), 어머니들에게 외조모의 양육지원은 삶의 만족과 외조모와의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승용, 정미경, 2006; 신화용, 조병은, 2004). 이러한 손자녀 양육에 관한 서로 다른 관점은 서로의 관계에 있어 갈등을 일으키는 소지를 제공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외조모가 조부모로서의 의미를 부정적으로 인식함으로써 오는 양육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조부모 긍정적 역할 수행을 도모하고 손자녀 양육에 대한 자신감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외조모들은 손자녀 양육에 있어 어머니와 갈등을 빚을 때 어머니의 자녀니까 한 발짝 물러나는 모습을 보인다. 반면 어머니들은 나의 자녀이니까 내가 외조모보다 더 자녀에 대해 양육자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외조모들이 한 발짝 물러나는 모습은 조부모 됨에서 조부모 역할의 두 가지 주요한 문화 규범으로 거기에 존재하면서(*being there*) 참견하지 않는 것(*not interfering*)으로 언급할 수 있다(Mason, May, & Clarke, 2007). 이 두 가지 규범에는 가깝게 있으면서, 떨어져 있어야 하는 양가성이 존재한다(신용주, 2015). 외조모는 손자녀를 양육할 때 주 양육자의 역할을 수행하지만 양육자의 위치는 대리 양육자로 주 양육자인 어머니의 양육 권한을 인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 이에 외조모와 어머니 간에 양육문제로 갈등이 빚어질 때 외조모는 어머니의 자녀 양육방식이 내키지 않더라도 따르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행동은 외조모가 손자녀의 주 양육자가 아닌 대리양육자임을 잘 인식하고 물러나는 것으로 어머니와 양육역할에서 생기는 갈등을 최소화하려는 외조모의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 주 양육자인 어머니들은 외조모와 양육문제로 갈등을 빚을 때 외조모의 양육개입을 제한하고 자신이 양육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어머니들은 외조모와 양육문제로 갈등이 일어날 때 ‘내 자녀니까’ 외조모에게 양육개입을 제한한다. 훈육하는 자녀를 외조모가 보호하려고 할 때 자녀를 데리고 나가는 행동과 자녀 양육문제를 결정하고 통보하는 식으로 외조모의 양육개입을 제한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문지기 역할로 설명할 수 있는데 문지기 역할(maternal gatekeeping)은 공동양육에서 나타나는 관계를 설명하는 것으로 공동양육자의 양육이나 가사노동에서 협력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신념과 행동으로 정의된다(Allen & Hawkins, 1999). 즉, 어머니가 공동양육자의 양육개입을 제한하고 자녀 양육에 있어 자신이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여 간섭하고 충고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다(Fagan & Barnett, 2003). 이러한 문지기 역할은 공동 양육자인 부부뿐만 아니라(De Luccie, 1995), 양육을 지원하는 조모와 성인자녀 간에도 나타났다(강수경 등, 2016). 이러한 어머니의 양육 개입에 대한 통제는 외조모와의 갈등상황에서 어머니 자신들의 역할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대처하기 위한 역할 물입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어머니들의 과한 통제는 외조모의 양육 참여에 지속해서 영향을 주어(이지영, 2008)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러한 어머니와의 갈등은 외조모들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보상감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주고 심리적 안녕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김문정, 2009; 김은정, 정순돌, 2011; 김희주, 주경희, 2008). 또한, 외조모와 어머니의 갈등은 어머니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데 조모와의 관계는 심리적 안정이나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박소영, 박태영, 2008; 전주혜, 박정윤, 2010; 황혜원, 2012) 이러한 양육갈등은 서로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서로 긴밀하게 상호 의존하는 관계특성을 고려하여 외조모-어머니 간에 대리양육자와 주 양육자 역할을 서로 이해함으로써 양육갈등을 줄이고 관계 향상을 돕는 가족 대화법 및 공동양육 가족 교육과 가족 상담을 제안한다. 또한, 손자녀 양육 현실에 대해 지지와 격려를 받을 수 있는 자조 모임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넷째, 외조모들은 자녀를 향한 사랑은 끝이 없다고 이야기하며 여자는 약해도 엄마는 강하다는 말처럼 건강할 때까지는 계속 자식을 챙겨주고 싶다고 말한다. 이에 따라 외조모들은 손자녀 양육이 끝나고 난 후에도 반찬과 김치로 어머니에 대한 지원을 계속 이어간다. 그러나 어머니들은 희생적인 외조모의 모습을 자신과 대조하여 생각해보지만, 외조모의 희생이 여자로서 이해가 되지 않으며 부모로서 나는 자녀에게 외조모처럼 못 할 거 같다고 보고한다. 이러한 결과는 외조모가 살아온 시대와 어머니가 살아온 시대의 차이로 볼 수 있는데 외조모들이 태어나고 자라온 1945-50년대는 한국전쟁 전후 시대로 전통적 가치관과 새롭게 유입되는 서구식 가치관이 공존하는 시대였다(고은채, 2013). 이 시대의 여성상은 가부장적 질서 안에 남성을 충실히 내조하여 자녀를 훌륭하게 키우는 현모양처로 자신의 성취가 아닌 타인의 성취를 대리로 만족하며 사는 것이 여성의 역할인 시대였다(윤복실, 2018; 고은채, 2013; 이명순, 2010). 그러나 어머니들은 산업화·도시화로 인해 확대된 핵가족시대에서 개인화된 삶의 방식과 여성들의 권리가 신장함에 따라 여성의 역할도 전문화되기 시작한 시대이다(백진아, 2013; 이성은, 2003). 외조모는 여성이기에 경험하는 시대적 많은 억압과 힘든 과정을 거치고 자녀 양육이 끝난 후에도 자녀를 위해 지속해서 손자녀 양육과 음식 지원으로 타인에게 희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지

만, 어머니들은 가족 중심적 ‘여성 역할’ 보다는 사회에서 주체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으로 교육받으며 자라온 세대로써 가족과 자녀보다는 우선 내가 행복해야 한다는 생각과 사회활동을 하지 않는 것은 힘들다고 이야기한다. 이를 통해 외조모와 어머니는 동시대를 살아가지만, 가족 안에 여성의 역할에 대한 서로 다른 세계의 경험을 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섯째, 외조모들은 손자녀와 있을 때는 정신없이 시간이 가서 아무 생각이 안 들었지만, 손자녀를 다 키워서 보내고 난 후 적적함과 외로움을 느낀다. 손자녀 양육을 할 때는 어머니의 가족과 자주 왕래하고 지냈지만, 양육이 끝난 후에는 자주 볼 수 없어 허전하고 뭔가 잊어버린 것 같은 상실감을 느낀다. 따라서 노년기 조부모들은 자녀성장, 독립, 출가에서 겪는 양육역할의 축소와 상실을 경험하고 또다시 조부모로서 해야 할 역할획득을 하지만 그 외에 새로운 역할획득이나 대체할만한 역할이 없어 노년기의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볼 수 있다(김춘덕, 2014). 이에 따라 외조모들은 손자녀 양육을 통해 자녀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어머니와 손자녀의 부모 역할에서 물러나게 됨으로써 이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상실감과 고독감을 느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노년기에 자녀와의 관계가 심리적 안녕감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인데(배나래, 박충선, 2009; 정순돌 2007; 강유진, 2003) 외조모들은 양육이 끝난 후 어머니와 긴밀한 교류가 없어지면서 거리감을 느껴 소외와 우울을 경험한다. 따라서 외조모를 위한 지원으로 손자녀 양육방법이나 어머니와의 관계개선을 위한 지침을 알려주는 것을 더하여 현시점에서는 조부모 역할에 대한 정체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노년기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제공이 필요하다.

어머니들은 외조모가 손자녀를 양육할 때는 외조모의 어려움을 깨닫지 못하다가 외조모의 부재 속에 자녀를 양육하며 어려움을 겪을 때 외조모의 노고를 깨닫는다. 외조모의 부재는 어머니에게 외조모의 존재에 대해 새로운 질문과 자각을 일으킬 수 있는데(최승이, 2011), 어머니들은 외조모의 손자녀 양육에 있어 외조모로서 당연히 해줄 수 있다는 생각에서 변화하여 외조모가 “힘들었겠구나.”, “섬섬했겠구나.”, “철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며 외조모의 마음을 깨닫게 된다. 또한, 어머니들은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외조모의 노고를 깨닫는데 이는 어머니들이 자신의 자녀와 새로운 애착을 형성하는 시기에는 외조모보다 자녀에게 주로 관심을 집중하지만(유계숙, 1995), 중년기에 접어들면서 노년기의 외조모와의 관계가 어머니의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조병은, 유은희, 이정순, 최혜경, 1996), 외조모의 삶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어머니들은 외조모와 양육 분리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고 자신의 생활세계 경험과 함께 외조모의 삶과 자신의 삶을 비교하고 해석함으로써 서로의 삶을 이해하고 새로운 의미를 생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연구결과는 어머니가 일과 가사라는 다중역할을 하는 시기에 어머니 됨을 가족 내에서 경험함으로써 외조모와 여성적 경험의 동질성을 얻는다(박신규, 1992)는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손자녀 양육 돌봄의 실질적 역할을 하는 외조모와 어머니를 주목하여 혈연관계인 외조모와 어머니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그러나 ‘여성’에게 집중된 연구는 돌봄 책임을 여성으로 고착화할 수 있기 때문에(백진아, 2013) 공동 양육자로서 돌봄 책임이 있는 어머니

의 남편인 아버지와 손자녀 양육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조부를 포함하지 못했다는 점은 연구의 한계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조부와 아버지를 포함한 다각적인 개입의 연구를 제안한다.

둘째, 본 연구는 외조모의 손자녀 양육지원 과정 경험과 양육지원 종료 경험을 모두 포함하여 탐색하고자 하였다. 양육지원 과정과 종료 경험은 상당히 긴 양육기간을 포함한 양육경험으로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긴 양육기간 동안 나타나는 변화를 심도 있게 살펴보지 못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현상학적 연구는 참여자가 경험한 현상의 본질에 대한 의미를 파악한다는 점에서 양육지원 종료 경험을 살펴본 것은 손자녀 양육지원 과정 경험을 탐색하는데 생생함이 부족할 수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손자녀 양육지원 이후 경험만을 살펴보는 연구를 제안하는 바이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는 손자녀 양육지원에서 외조모-어머니를 대상으로 2세대에 초점을 맞춰 살펴보았다. 부모의 양육행동은 한 세대에서 습득하여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속적인 세대 간의 흐름을 통해 세대전수가 된다. 따라서 외조모와 어머니, 그리고 그들에게 양육을 받는 손자녀를 대상으로 3세대 연구를 통해 손자녀 양육에 대한 가족 관계를 확장하여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손자녀 양육지원에 관한 많은 연구가 대부분 조부모를 대상으로 초점이 되어 있고 양적 연구로 진행되어 왔으나 본 연구가 2세대 외조모와 어머니를 초점으로 가족관계안에 나타날 수 있는 복잡한 상호작용의 특성을 심도 있게 탐색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보이는 한국 문화 특성을 바탕으로 외조모-어머니의 손자녀 양육경험을 이해하는 차원을 넘어 외조모와 어머니의 심리 정서적 유대관계와 관계 역동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손자녀 양육지원 가정을 다각적으로 이해함으로써 손자녀 양육 지원 가족 구성원의 건강한 관계 형성 및 양육환경을 향상할 수 있는 기초적인 토대를 제공한다.

참고문헌

- 강수경, 최혜정, 정미라 (2016). 손자녀 양육 조모의 성인자녀와의 결속도, 손자녀와의 친밀도, 문지기 역할이 조모역할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학회지**, **16**(1), 141-161. doi:10.21213/kjcc.2016.16.1.141
- 강유진 (2003). 한국여성노인들의 노년기 적응과 노년기 삶의 모습에 대한 질적 연구.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41**(3), 131-146.
- 강유진 (2011). 손자녀 돌봄과 조부모의 심리적 복지 - 돌봄 상황, 양육지각, 자원의 상호관련성을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34**(1), 73-97.
- 강이수, 신경아, 박기남 (2015). **여성과 일: 일터에서 평등을 찾다**. 파주: 동녘.
- 강혜경, 어성연 (2015). 농촌거주 다문화 가정의 자녀출산과 양육경험 - 결혼이주여성과 시어머니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유아교육학논집**, **19**(6), 395-422.

- 경북여성정책개발원 (2015. 8). 조부모의 손자녀 세대에 대한 역할수행 강화 프로그램: 잘 나가는 할매 할매, 손자녀와 통(通)하다. http://www.forwoman.or.kr/business/research_report/view/6537?limit=10&page=5에서 2018년 5월 11일 인출
- 고은채 (2013). 대한민국 국가 재건시기 여성의 재현 방식에 관한 연구: 1950년대 여성잡지 『여원』, 『여성계』의 만화와 만평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문정 (2007). 손자녀를 양육하는 할머니의 양육부담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7**(6), 914-923. doi:10.4040/jkan.2007.37.6.914
- 김문정 (2009). 원저: 손자녀 양육 조모의 생활만족도 구조모형. **여성건강간호학회지**, **15**(3), 231-241. doi:10.4069/kjwhn.2009.15.3.231
- 김미옥, 송승민, 이사라 (2015). 맞벌이 가정 조모의 손자녀 양육경험과 양육갈등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조모와 취업모 관점에서.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1**(4), 239-269. doi:10.14698/jkce.2015.11.239
- 김미혜, 성기옥, 팽경희, 최희진, 최소영 (2011). 손자녀 양육 조부모와 자녀와의 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조부모의 특성을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31**(4), 905-923.
- 김승용, 정미경 (2006). 손자녀 돌봄에 대한 조모 및 취업모의 인식 조사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11**(5), 67-96.
- 김양지영 (2015). 돌봄의 세대 전가: 전일제 취업 부부의 조(부)모 양육 지원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31**(4), 87-145.
- 김은정 (2011). 영유아 손자녀 양육에 참여하는 조모의 양육스트레스: 취업모 맞벌이가정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은정 (2012a). 맞벌이가정 영유아기 손자녀 양육조모의 양육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부부 및 자녀관계, 가족지지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가족복지학**, **17**(2), 25-48.
- 김은정 (2012b). 손자녀 양육 조모의 양육보상감 및 영향요인. **한국노년학**, **32**(3), 851-867.
- 김은정 (2013). 맞벌이가정 손자녀 양육지원 조모와 취업모 간 관계유형 및 관계의 질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40**, 93-123. doi:10.16975/kjfs.2013.40.004
- 김은정 (2014a). 맞벌이가정 취업모가 인식하는 손자녀 양육지원 조모와의 관계 및 영향요인. **한국영유아보육학**, **84**, 163-183.
- 김은정 (2014b). 손자녀 양육지원가정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영향요인. **한국영유아보육학**, **89**, 237-259.
- 김은정 (2015). 손자녀 돌봄지원 관련 연구 동향과 과제 -2000년 이후 국내학술지 논문을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50**, 69-96.
- 김은정, 정순돌 (2011). 손자녀 대리양육 조모의 적응경험에 관한 연구 -취업모 가정을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31**, 175-210. doi:10.16975/kjfs.2011..31.007
- 김춘덕 (2014). 노인 역할상실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연구: 우울증상의 매개효과 검증 중심으로. 백석대학교 기독교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태현, 이문숙 (2011). **현대사회와 여성**. 파주: 교문사.
- 김현정 (2015). 성인자녀의 입장에서 본 맞벌이 가족의 손자녀 양육에 대한 인식 유형: Q방법론의 적용.

- 사회복지연구, **46**(1), 135-163. doi:10.16999/kasws.2015.46.1.135
- 김희주, 주경희 (2008). ‘한국적 성공적 노후척도’를 활용한 노인의 삶의 만족에 관한 연구. **노인 복지연구**, **41**, 125-158.
- 박소영, 박태영 (2008). 며느리들의 시어머니와의 관계 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6**(4), 55-71
- 박신규 (1992). 딸의 체험을 통해본 모녀관계의 성격과 변화: 30대 전문직 여성 사례연구. **여성학논집** **9**, 244-245.
- 박윤, 심형인, 이숙중 (2014). 한국인 인간관계의 문화적 특성과 척도개발-온정적 인간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0**(4), 415-441.
- 배나래, 박충선 (2009). 노년기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적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9**(2), 761-779.
- 백지은 (2018). 손자녀 돌봄경험이 조부와 조모의 심리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융합학회논문지**, **9**(1), 363-375. doi:10.15207/JKCS.2018.9.1.363
- 백진아 (2013). 중장년 기혼 여성의 손자녀 양육 경험 -돌봄 공백의 가족주의적 대응. **담론****201**, **16**(3), 67-94. doi:10.17789/discou.2013.16.3.003
- 보건복지부 (2016. 1). 2015년 전국 보육실태 조사. http://www.prism.go.kr/homepage/researchCommon/retrieveResearchDetailPopup.do?research_id=1351000-201600003에서 2018년 3월 1일 인출
- 신경립 (2004). **질적 연구방법론**.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신용주 (2015). 조부모됨과 조부모역할 다시 보기. **Andragogy Today**, **18**(4), 29-47.
- 신화용, 조병은 (2004). 사회교환론적 관점에서 본 노모를 부양하는 성인자녀가 지각한 대가, 보상 및 관계의 질 - 한국과 재미교포자녀의 비교 -. **한국가족관계학회지**, **9**(1), 153-174.
- 안희란, 김선미 (2015). 손자녀 양육지원 경험에 대한 할머니들의 해석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9**(1), 93-109.
- 양소정, 정경미, 김원경 (2008). 공동양육 조모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간 관련성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3**(4), 415-432. doi:10.18205/kpa.2008.13.4.002
- 여성한국사회연구회 (1995). **가족과 한국사회**. 서울: 경문사.
- 유계숙 (1995). 성인 딸과 어머니의 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2), 78-85.
- 유재언 (2017). 세대 간 돌봄이 성인 자녀와 부모 간의 지리적 근접성에 미치는 영향. **여성연구**, **92**(1), 31-56.
- 유희정 (2016). [이슈브리프]조부모 영아양육 지원 활성화 방안 연구. **젠더리뷰**, **42**, 30-35.
- 육아정책연구소 (2015. 11). 조부모 영유아 손자녀 양육실태와 지원방안 연구. http://www.kicce.re.kr/kor/publication/02.jsp?mode=view&idx=18983&startPage=30&listNo=92&code=report01&search_item=&search_order=&order_list=10&list_scale=10&view_level=0에서 2018년 4월 13일 인출
- 윤복실 (2018). TV 드라마 <디어 마이 프렌즈>에 나타난 가족이데올로기 체계 연구: 레이몬드 윌리엄스의 ‘정서의 구조’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남인 (2005). 현상학과 질적연구방법. **철학과 현상학 연구**, **24**, 91-121.
- 이명순 (2010). 1950년대 한국 여성담론 연구: 젠더화된 근대인식과 여성성의 재현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서영 (2013). 돌봄유형에 따른 보육사업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 손주돌보미와 아이돌보미사업을 중심으로 -. **한국영유아보육학**, **80**, 175-198.
- 이성은 (2003). 한국의 근대성과 가부장제의 변형: 한국여성연구원 편, 이화여대 출판부, 2003. **한국여성학**, **19**(3), 245-248.
- 이수미, 이숙현 (2010). 취업모의 다중역할의 질과 심리적 건강.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5**(3), 67-90.
- 이은지 (2013). 한국에서 주택 담론의 역사적 변화: 1970~2000년대 신문기사를 통해 본 '내집마련' 담론.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재림 (2013). 손자녀 양육지원에 따른 조모와 취업모의 관계 경험.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1**(2), 1-24. doi:10.7466/jkhma.2013.31.2.001
- 이지연, 김원경, 정경미 (2009). 지원 양육조모의 양육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대처, 양육 행동에 대한 연구 -주 양육모, 부분 양육모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29**(2), 441-458.
- 이지영 (2008). 아버지의 양육 효능감과 자녀 양육 참여: 어머니의 문지기 역할을 매개 변인으로.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현수 (2007). 손자녀를 양육하는 할머니의 심리적 체험연구. **질적연구**, **8**(1), 67-78.
- 전연우, 김윤숙, 조희숙 (2012). 손자녀 양육과정에서 경험하는 외할머니의 심리적 상태에 관한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17**(6), 175-199.
- 전주혜, 박정운 (2010).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원가족 경험이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4**(4), 127-150.
- 정경미, 김미경 (2012). 조모와 어머니의 자녀양육 역할기대에 대한 인식. **한국교육문제연구**, **30**(3), 63-79.
- 정미라, 최혜정 (2017). 손자녀 양육 조모와 성인자녀의 결속도 유형. **유아교육연구**, **37**(4), 533-556. doi:10.18023/kjece.2017.37.4.022
- 정순돌 (2007). 여성노인과 남성노인의 성공적 노화에 관한 인식 비교연구. **한국노년학**, **27**(4), 829-845.
- 정영숙, 장혜자, 김연화 (2005). 조모와 어머니 두 세대의 자녀양육행동 비교연구 - 유아어머니가 지각한 내용을 중심으로: 조모와 어머니 두 세대의 자녀양육행동 비교연구. **생활과학연구논총**, **9**(2), 49-59.
- 정태연, 노현정 (2005).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른 양육죄책감과 양육행동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0**(2), 211-231.
- 조미현, 김현수 (2015). 부모의 보육시설 신뢰와 교사의 정서적 기질이 영유아의 보육시설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복지학**, **51**, 77-103.
- 조병은, 유은희, 이정순, 최혜경 (1996). 3세대 모녀간의 애착 · 자율성 발달특성과 심리적적응.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4), 191-201.
- 조용환 (2012). 교육인류학과 질적 연구. **교육인류학연구**, **15**(2), 1-21. doi:10.17318/jae.2012.15.2.001

- 조윤주 (2017).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의 우울에 관한 연구: ABC-X 모델의 적용. **학습자중심 교과교육연구**, **17**(21): 335-359. doi:10.22251/jlcci.2017.17.21.335
- (주)마크로밀엠브레인(구엠브레인트렌드모니터) (2014). 황혼육아(조부모 육아) 관련 조사. **리서치보고서**, **2014**(3), 152-180.
- 차성란 (2014). 가족돌봄기능과 관련된 세대갈등 가능성에 대한 고찰.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8**(4), 111-133.
- 최승이 (2011). 엄마를 상실한 중년여성의 애도 경험.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22**(4), 637-653. doi:10.7856/kjcls.2011.22.4.637
- 최혜지 (2004). 손자·녀 양육형태가 노부모와 성인자녀의 세대관계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24**(3), 31-49.
- 하석철 (2015). 조부모의 아동 양육 지원이 아동의 모가 가지는 노부모와의 동거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친정부모와 시부모 간의 차이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6**(2), 37-63. doi:10.16999/kasws.2015.46.2.37
- 하석철 (2016). 과거 모(母)의 경제적 지원과 손자녀 돌봄이 성인자녀와의 동거에 미치는 영향-장기적 호혜 모델을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53**, 161-198.
- 하석철, 홍경준 (2016). 모(母)의 손자녀 돌봄이 성인자녀와의 접촉 수준에 미치는 영향: 장기적 상호관계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7**(1), 261-290. doi:10.16999/kasws.2016.47.1.261
- 한경혜, 윤성은 (2004). 한국가족 친족관계의 양계화 경향: 세대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27**(2), 177-204.
- 한민아, 한경혜 (2004). 세대간 지원교환유형과 성인자녀의 심리적 복지감. **한국가족관계학회지**, **9**(1), 135-152.
- 한유리 (2015). **질적연구 입문**. 서울: 박영story.
- 황혜원 (2012). 어린자녀를 둔 저소득 취업모의 심리적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7**(1), 47-64.
- Allen, S. M., & Hawkins, A. J. (1999). Maternal gatekeeping: Mothers' beliefs and behaviors that inhibit greater father involvement in family work.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1*(1), 199-212. doi:10.2307/353894
- Bowers, B. F., & Myers, B. J. (1999). Grandmothers providing care for grandchildren: Consequences of various levels of caregiving. *Family Relations*, *48*(3) 303-311. doi:10.2307/585641
- De Luccie, M. F. (1995). Mothers as gatekeepers: A model of maternal mediators of father involvement. *Th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56*(1), 115-131. doi:10.1080/00221325.1995.9914811
- Fagan, J., & Barnett, M. (2003).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gatekeeping, paternal competence, mothers' attitudes about the father role, and father involvement. *Journal of Family Issues*, *24*(8), 1020-1043. doi:10.1177/0192513x03256397
- Gattai, F. B., & Musatti, T. (1999). Grandmother's involvement in grandchildren's care: Attitudes,

- feelings, and emotions. *Family Relations*, 48(1), 35-42. doi:10.2307/585680
- Giorgi, A.(ed.) (1985). *Phenomenology and psychological research*. Pittsburgh, PA: Duquesne University press.
- Hamnett, C., Harmer, M., & Williams, P. (1991). *Safe as houses: Housing inheritance in Britain*. London: Paul Chapman.
- Mason, J., May, V., & Clarke, L. (2007). Ambivalence and the paradoxes of grandparenting. *The Sociology Review*, 55(4), 687-706. doi:10.1111/j.1467-954X.2007.00748.x
- Morse, J. M., & Field, P. A. (1995).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for health professionals*. Thousand Oaks, CA: Sage.
- Reitzes, D. C., & Mutran, E. J. (2004). Grandparenthood: Factor influencing frequency of grandparent-grandchildren contact and grandparent role satisfaction. *Journal of Gerontology: Series B: Psychological Sciences and Social Sciences*, 59(1), S9-S16. doi:10.1093/geronb/59.1.s9
- Rossi, A. S., & Rossi, P. H. (1990). *Of human bonding: Parent-child relations across the life course*. NY: Aldine de Gruyter.
- Saunders, P. (1990). *A nation of home owners*. London: Unwin Hyman.

논문투고: 18.06.09
수정원고접수: 18.09.10
최종게재결정: 18.09.18